

아프리카 기니에서 제로 형거를 향하여

- 이름 : 이경민
- 근무기구 및 부서 : UNWFP Guinea Conakry, Country Director Office
- 직위/직급 : 전략적 성과 관리 어시스턴트
- 지원경로 : 인턴
- 근무기간 : 2022.09.05. - 현재

1. 들어가며

학부생에게 유엔 인턴은 너무나 높은 장벽이라 느껴질 수 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유엔 인턴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지원 자격에는 3가지의 기준이 제시되며, 그중 하나는 ‘현재 학부(학사) 학위에 등록되어 있으며, 최소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최근 1년 동안 학부 수업에 참여한 자’로 명시된다.¹⁾

이 글은 학부 3학년 2학기를 앞두고 1년을 휴학한 후, 유엔 인턴을 위해 아프리카 기니로 떠난 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의 학부생활은 진로의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하고 싶은 일들에 도전하는 시간들로 가득했다. 그 과정에서 끝 없는 불안함을 겪기도, 스스로의 능력과 한계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슬럼프가 찾아올 때마다 선배들이 해주신 조언과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되었기에, 이 수기가 나와 비슷한 시기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WFP 기니사무소의 인턴이 되기까지

긴 여정의 시작을 떠올려보기 위해 5년 전, 고등학생 1학년 때로 돌아가보고자 한다. 당시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의 소장님께서 들려주신 2시간의 강연에는 세상에 남겨진 배고픈 아이들, 제로형거, 유엔이 이들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덕분에 기아와 굶주림, 취약국에 관심을 가졌고, 일

1) 기구 및 사무소, 직무 등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다를 수 있다.

찍부터 ‘국제사회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큰 질문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제너럴한 학문에서 시작해 전문성을 찾고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고, 한·아프리카재단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아프리카와의 인연이 시작된 듯하다.

한·아프리카재단은 대한민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외교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동시에 여러 사업과 연구 분석 등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매체가 주목한 아프리카의 가난한 모습과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의 숨겨진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하던 본인으로서는 오히려 선진화에 도달한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사하라 이남 취약국의 대비가 크게 느껴졌다.

당시의 나는 개발협력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를 국가간 ODA 프로젝트 또는 국제기구와의 프로젝트가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개발협력 분야와 연관하여 나의 전문성을 찾고 있었다. 본교 및 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서포터즈를 하며 개발협력 섹터별 공부를 하는 동시에 본교와 코이카가 주관하는 우간다 농업 사업 프로젝트의 요약본을 모니터링하고, 개발협력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대학원 진학을 위한 분야를 모색 중에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ODA 사업의 특성상 수혜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닿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을 지속하는 중, WFP 기니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제로 헝거 빌리지 프로젝트와 영양실조 아동을 위한 학교 급식사업은 수혜자에 적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치사슬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가려운 부분을 해소해주는 듯 하였고, 이후 국제기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인턴십에 지원 후 합격할 수 있었다.

3. 전략적 성과 관리 : ‘기니, 제2의 대한민국이 되어라’

WFP 기니 국가 사무소에서 본인은 전략적 성과 관리(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를 담당하고 있다. 기니 오피스는 3개의 지역 오피스(Kankan, Boké, Nzérékoré)를 포함하며, 오피스 내에는 CD Office, Programme, Supply Chain, Partnership & Communication, Finance, Administration, HR, BPU, UNHAS, Security, ICT의 총 11개의 팀이 기능한다. 각 팀은 매달 연초에 설정했던 목표

(Key Target)와 KPIs, 매달 진전 상황을 공유하는 스냅샷을 제출하고, 이 스냅샷을 기반으로 오피스의 전반적인 성과 관리를 어시스트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프로젝트 운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평가를 하기 위해 오피스 내 모든 팀의 업무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식량을 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우리 오피스에서 작년 대비 올해의 가장 큰 성과는 ‘평균 540일이 소요되었던 식량 지급 기간(Total Business Days)을 최소 45일로 줄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업무는 각 개인의 근태와 성과를 관리하는 일이다. 모든 직원들의 출퇴근 데이터와 주별 업무 진행 상황, 기여도가 높은 직원들의 명단 등을 정리하여 매주 대시보드에 작업한다.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생각할 수 있으나 국제기구 각 사무소의 성과는 도너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는 모금으로 연결되기에 중요성이 크다.²⁾

무엇보다 기니 사무소의 경우, 현 소장님이 오시기 이전의 상황은 최악에 가까웠다고 한다. 거버넌스가 정립되지 않아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 부정 부패, 횡령을 일삼는 직원들이 많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배급되어야 할 식량 지급에 540일이 소요되니 도너의 신뢰를 잃어 오피스에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자금 마저 남아있지 않았었다고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자 규율을 정립하여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개인의 근태부터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기니 사무소의 지향점은 제2의 대한민국이 되어 국가 내 제로 형거를 달성하는 것이다. 한국과 기니는 같은 시기에 유엔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은 20년 내에 공여국으로 발전하였고, 기니는 여전히 인구의 5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기니에 제로 형거가 달성되었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4. 첫 필드에서 빈곤의 실상을 마주하다

사실 2.에서 서술한 경험으로 나름 아프리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

2) 역시 기구 및 각 사무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니는 나에게 너무나 생소한 국가였다.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었고, 언론에는 일 년 전 쿠데타에 관한 기사만 가득했다. 그렇게 도착한 기니의 첫 인상은 내외국민 간 삶의 격차가 피부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우기 동안 내리는 비에 쓰러질 것만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기니 국민들과 곳곳에 현대식 아파트를 짓고 있는 외국인들의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

오피스가 위치한 수도는 기니의 다른 지역들에 비하여 삶의 수준이 월등한 편이나, WFP의 Hunger Map에 따르면 수도 코나크리를 포함한 기니 전 지역의 Food Consumption Score (FSC)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중 Nzérékoré 지역은 전체 지역민의 89.28%가 식량 소비 불충분 상태로, 가장 빈곤이 심한 지역이다. 인턴으로 근무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었던 10월 14일, 통일벼 실험지이자 학교 급식 사업지인 Nzérékoré의 Kissidougou라는 마을에 방문하며 처음으로 필드에 가볼 수 있었다.

UNHAS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흙길과 비포장 도로에서부터 코나크리와는 확연히 다른 인상을 받았다. 사방을 살펴봐도 소득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경제 활동은 어려워 보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듯했다.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WFP의 사업으로 제공되는 급식을 먹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균 1시간을 걸어 학교에 오고, 점심에 먹는 이 한 끼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식사의 전부라 한다. 그럼에도 해맑게 웃고, 손을 내밀고, WFP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Nous sommes content, Très content'이라 노래 부르는 아이들을 보며 WFP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해보게 되었다.

5. 한국의 통일벼로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Zero Hunger Village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빈곤을 벗어난 것처럼, 기니를 제2의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사무소에서는 Zero Hunger Village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니의 벼 수확량보다 7-8배 생산 가능한 한국의 통일벼를 심어 수확량을 늘린 후, 수확한 벼를 시장에 팔고, WFP가 사들여 소득 활동을 가능케 한 후, 향후 잉여 수확량 수출까지 계획하여 하나의 가치 사슬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니 각 지역에 통일벼 품종을 실험하였고, 올해 11-12월 첫 추수를 앞

두고 있다. 현재 오피스와 지역 사무소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이 제로 형거 빌리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본인 역시 그에 따른 성과 관리를 수행 중이다.

6. 끝맺으며

누구에게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믿는다. 그 첫 전환점이 나에게서는 고등학생 때 꿈을 안겨 주셨던 강연자분을 Supervisor로 다시 뵙고, WFP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된 지금이라 확신한다.

국제기구 진로를 준비하며 좁은 관문에 대한 두려움, 높은 장벽 등으로 인해 중도 포기를 하거나 깊은 고민에 빠진 친구들의 경우를 많이 보곤 한다. 본인이 생각했던 기구 또는 직무와 방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기회라 생각된다면 후회없이 도전해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소장님을 포함하여, 이곳에서 근무하며 만난 많은 유엔 직원 분들 역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셨다.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느껴지더라도, 조금은 서투를 수 있는 사회 초년생이니 용감하게 맞서보자.

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학부생으로서 국제기구 지원에 있어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제2 외국어로, 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어였다.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진 이후 프랑스어가 이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공부를 시작했다. 낮은 단계의 자격증으로 시작해 프랑스로 교환 학생을 다녀오고, 현재는 학부 졸업 이후 프랑스 대학원을 고려 중이다. 국제기구 진로를 준비 중이라면 제2 외국어로서 유엔 공용어인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이 본인의 큰 강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두 번째는 유엔협회세계연맹 유엔본부 한국 대학생 대표단(WFUNA CLUN) 프로그램이다. 학부생으로서 4개월 동안 국제기구 퀄리티의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뉴욕 유엔 본부에 다녀 오으로써 다방면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 본인은 9기 출신으로서 5명의 팀원과 함께 SDG 4 관련 주제로 46페이지의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현재는 11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선후배 기수간 네트워크도 활발하여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점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

[사진자료]



그림 1. Kissidougou 마을 통일벼 경작지



그림 2. Kissidougou 마을 내 WFP School Feeding 사업지 (학교 급식소)



그림 3. WFP가 제공하는 급식을 먹는 학생들



그림 4. UNHAS 항공기 탑승 사진